

2024년 1월 7일. January 7, 2024
금문교회 신년주일예배. GGPC New Year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2.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Genesis 1:1-5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낼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을 열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그 첫 걸음을 뚝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사랑의 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복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복음증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후파를 비롯한 우리의 선교지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통하여 범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1 Corinthians 11:23-29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참 사랑은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의 첫 번째 주일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복된 성찬의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써, 성찬의 참된 뜻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이사야 Isaiah 43:14-21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Thus says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For your sake I send to Babylon and bring them all down as fugitives, even the Chaldeans, in the ships in which they rejoice.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I am the Lord, your Holy One, the Creator of Israel, your King."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in the sea, a path in the mighty waters,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who brings forth chariot and horse, army and warrior; they lie down, they cannot rise, they are extinguished, quenched like a wick: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Remember not the former things, nor consider the things of old.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The wild beasts will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striches, for I give water in the wilderness, rivers in the desert, to give drink to my chosen people,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화 감동하사, 육신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의 일에 헌신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되어, 200년가량 서로 갈등 대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허무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 공허,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셔서 창조하셨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전 8세기, 유다 땅에서 사역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셨습니다.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Thus says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For your sake I send to Babylon and bring them all down as fugitives, even the Chaldeans, in the ships in which they rejoice.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의 승리로 즐기던 바로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은 "구원"이며, 그것은 "새 창조"입니다.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I am the Lord, your Holy One, the Creator of Israel, your King."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1.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존재입니다.
2.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3.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16.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in the sea, a path in the mighty waters,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출애굽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 홍해바다를 갈라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 광야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2. 요단강을 끊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who brings forth chariot and horse, army and warrior; they lie down, they cannot rise, they are extinguished, quenched like a wick:

병거, 말, 군대의 용사를 그 의지하던 세력에서 끊어내셨습니다.

1.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 그들이 홍해바다에 잠겨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2.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꺼진 등불처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낫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Remember not the former things, nor consider the things of old.

이제 말씀하십니다. 1.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2.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키셨고, 북 이스라엘을 앗시리아의 손에, 남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니다. 지난 날의 고난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은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수사어문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알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임을 시사합니다.

반드시. 꼭,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2.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면, 광야는 광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면, 사막도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The wild beasts will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striches, for I give water in the wilderness, rivers in the desert, to give drink to my chosen people,

이로써 심지어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 말입니다.

왜냐하면 1.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2.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3.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새 일"입니다.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목적을 밝히십니다. 1.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들어 있는 이사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새 아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를 선포합니다. 금문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십니다. 2.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소요리문답(Shorter Catechism) 첫 번째 질문(Q)과 대답(A)입니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Q: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A: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 깊고 어두운 곳은 물이 없어 마른, 샘물이었던 자리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In my distress, I called the Lord, and he answered me.
시편 Psalm 120: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O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the voice of my pleas for mercy!
시편 Psalm 130:1-2

극단적인 세속화로써 여기는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O Israel,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steadfast love, and with him is plentiful redemption. And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his iniquities.
시편 130:7-8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우리의 찬양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2024년.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새 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But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and I am working."
요한복음 John 5:17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낮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Again Jesus spoke to them,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요한복음 John 8:12

하나님께서 2024년 새 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마태복음 Matthew 1:23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이상은 현실을 지배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15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Martin Luther King Jr. Day)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28일, Washington DC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에서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그 제목은 "I have a dream"입니다. 사실 그 연설은 이사야서 말씀에 바탕을 둔 "설교"였습니다. 그는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침례교회(American Baptist) 소속 목사입니다. 그는 개인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약 25만 명이 현장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것입니다. 그 꿈은 노예와 증오의 땅에서 자유와 평등이 솟아 올라오는 꿈입니다. 특별히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비전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Isaiah)는 온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예언했습니다. 모든 인종(races)과 나라(nations, states)를 넘어서, 온 인류(all humans)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tter days
that the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shall be established as the highest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lifted up above the hills;

and all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and many peoples shall come, and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that he may teach us his ways
and that we may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a]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He shall judge between the nations,
and shall decide disputes for many peoples;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거하자!
 O house of Jacob,
 come,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이사야 Isaiah 2:2-5, ESV

이 정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평화로 나타납니다.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tened calf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of the cobra,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adder's den.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They shall not hurt 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이사야 Isaiah 11:6-9

마틴 루터 주니어의 설교 이후, 우리는 들었습니다. 흑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을 지냈고,
 흑인여성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현직 부통령입니다. 흑인이 그것도 흑인여성이
 하바드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클라우딘 게이(Claudine Gay)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흑인-백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흑인보다 더 뿌리가 깊은
 원주민(Native Americans) 차별문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의 권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미국 땅을,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보여주신
 비전을. 왕국과 제국의 시대가 갔습니다.

일제식민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은혜입니다.

군사독재의 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최근에 “누가 민주화의 주역인가?” 그런 사설이 신문에 났습니다. 남한의 민주화에 교회의 기여가 얼마나 큼니까?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평화가 오는 길도 말씀과 그 말씀 순종하는 교회가 열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들을 통하여 설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이루신 일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정의가 멀었고, 아직도 진정한 평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민족을 말살하려는 종족학살(genocide)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귀한 열매들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기에 제법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말씀을 읽고, 그 후에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쓰다면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양상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와, 당신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종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성취”는 그 자체로 미흡합니다. 그 가치를 부인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중에,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으로써 이 세상일에서 작은 열매를 거두는 중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사역 중에, 사람들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원리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마태복음 Matthew 5:16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작은 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인간 단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랑과 타조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스가랴 Zechariah 4:6c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이사야 Isaiah 9:7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새 창조,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